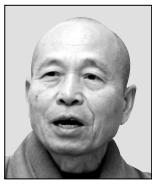


일 주 문



2013 히말라야 요가 캠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9월 9~11일 월정사 문수선원에서 2013 히말라야 전통 요가 캠프를 개최한다.



원각경 고운사 특강
각성 스님은 8월 26~30일 오후 2시 고운사 선재학관에서 '원각경보안보살장'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조계사 관음전 준공식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8월 30일 조계사 관음전 준공식 및 주불 점안식을 개최한다.



난치병 장애청소년 돕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화 스님은 8월 7일 제13회 3000배 철야정진으로 모인 500만원을 난치병 청소년 2명에 전달했다.



한국전통문화 체험 행사
마산 광명암 주지 정인 스님은 지구촌공생회와 함께 8월 19~25일 미얀마 아난다미따 광명초 17명 초청 한국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디자인이 좋은 책' 수상
이호신 작가는 저서 <가람진경, 지리산진경> (다빈치)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13 디자인이 좋은 책' 공모 수상자로 선정됐다.

24대 회당학원 이사장 증광 정사

위덕대서 열린 임시이사사회서 만장일치로



학교법인 회당학원 제24대 이사장에 증광(경산심인당 주교) 정사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8월 13일 위덕대서 제41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4대 이사장으로 증광 정사를 만장일치 선출했다.

8월 2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해명 정사 후임으로 2016년 12월 18일까지 회당학원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증광 정사는 "학교법인과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회당학원 이사장 증광 정사는 1985년 감포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심인고등학교 정교, 제9~12대 진각종 총의회 의원, 통리원 재무부 관제국장, 사감원 사감부장, 통리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13대 총의회 의원과 제34대 사감원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이사회는 이에 앞서 개방이사 수성(남부심인당 주교) 정사 후임 이사로 덕정(밀엄심인당 주교) 정사를 선임하고, 효심(보정심인당 주교) 정사 후임 이사로 경당(아축심인당 주교) 정사를 선임했다. 신임 이사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 일로부터 2015년 1월 21일까지다. 김주필 기자

대장경 가치 알리는 세계적 축제로

김이수 대장경축전 집행위원장



"대장경은 단순한 불교 문화재가 아닌 우리 민족의 기록문화와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대장경의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개막을 한 달여 앞둔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김이수(사진) 집행위원장은 "대장경 축전을 우리 민족이 지닌 위대한 문화 유산의 정신적 가치를 더 높이는 세계적인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상남도와 함천군, 해인사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5일 동안 함천군 해인사 일대에서 열린다.

김 위원장은 "2011년 200만 명이 축전을 방문했지만 올해는 16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5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해외는 물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종교계를 넘어 국민, 그리고 세계인의 축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행사는 다르게 아이들이 쉽게 대장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장경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0억을 들여 5D 입

축전 기간 160만명 방문 목표
힐링체험, 5D입체영상관 등 다양

체영상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기록문화관, 세계문화유산관, 세계힐링체험관, 고려대장경역사관, 미래희망관 등 관객들이 체험하고 즐기고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축전에는 지난 행사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며 △소리길 힐링체험 △대장경 진본 전시 △변상도 전시 △디지탈 5D입체영상관 △해인사 마애불 공개 △삼야 비경 탐방 등을 대표적인 콘텐츠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주재관인 대장경전년관은

디지털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해 대장경의 모든 자료와 기록들을 디지털로 검색·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대장경전시실에서는 3D맵핑 영상과 레이저쇼를 활용해 대장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축전 이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장경전년관의 개념을 디지털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으로 통합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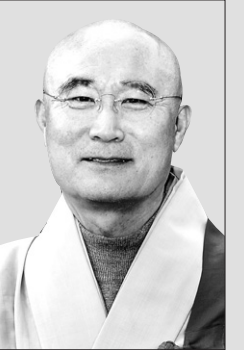
축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장경축전은 생선유발효과 7000억원, 소독유발효과 1600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4150명, 부가가치유발효과 3000억원 등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또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국제행사 승인을 어렵게 받은 만큼 단순히 입장권 수입만을 올리기 위한 축제가 아닌, 국민에게 질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장경은 국보 32호이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이를 기념하고 세계에 알리기 위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 불교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대장경축전을 통해 팔만대장경이 갖고 있는 호국외지와 국난극복 의지를 하나로 모으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원 스님, 500만원 쾌척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500만 원을 쾌척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했다. 2012년 2월 논산훈련소 군법당 건립기금과 자비나눔기금으로 15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원 스님은 "기금전달을 계기로 더욱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사찰과 스님들의 모범이 돼 기금마련에 동참하고 있으며, 심시일만 나눔에 동참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 기자

법상종 미얀마 불교교류 협약



(사)대한불교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8월 8일 종단 본사인 안성 쌍미리사 용화전에서 총무원장 해월 스님의 미얀마 사사나 국립대학 불교철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 수여식 이후 미얀마 국제문화교류협회의회와 법상종의 문화교류 협약이 체결됐으며 미얀마 정부 왕사 스님을 통해 500나한상을 기증 받고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올곧은 보도로 지역발전 도모하겠다"

춘천불교방송 신임사장 정현 스님

진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춘천 방송국이 개국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타 지역과 비교해 낮은 청취율, 열악한 재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봉사 주지 정현 스님이 춘천불교방송 제6대 사장으로 선임됐다. 스님은 "앞으로 올곧은 보도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 고양, 강원도민의 화합을 위해 정

그동안 춘천불교방송에서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1년간 진행을 맡아 온 스님은 이번 취임을 계기로 강원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아직까지 시간 지역으로는 방송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스님은 현재 꼴찌를 달리고 있는 청취율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스님은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꼴찌의 반란을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나가면서 차츰차츰 발전하는 춘천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현 스님은 1978년 신홍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출가, 원각사(속초), 심원사(철원) 주지 등을 지냈으며, 서울 중구경찰서 경승실장, 춘천교도소 불교교화위원, 고성경찰서 경승실장을 맡고 있다.

정혜숙 기자

주식회사 MP,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3억원 기부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주식회사 MP(대표이사 이부형)가 학교 발전기금 3억원을 기부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주식회사 MP는 포항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유통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아너소사이터) 등의 기부 활동과 지역 봉사 등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발전기금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주식회사 MP의 포항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 조치다.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포항과 경주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

지 못했다"며 "이부형 대표이사의 발전기금으로 시작된 포항지역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기여와 양질의 고등교육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부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포항지역 평생교육과정을 전담하는 인재교육원 부서를 신설하여 기존의 포항지역에서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평생교육과정(위탁교육, 일반과정 등)을 오는 9월에 개설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진오 스님, 국토완주 2000km 도전



달리는 수행자로 알려진 진오 스님(50, 대둔사 주지)은 2012년 11월부터 시작한 4대강 자전거길 1천km 완주에 이어 국토완주 2천km 마라톤을 8월 13일부터 제주도에서 출발한다.

진오 스님은 "장래를 위해 힘들어도 계속 공부하려는 통일학생을 미래의 통일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 행사에는 경북 구미와 제주에 거주하는 통일청소년 11명이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제주도 자전거길 220km를 직접 두 바퀴를 굴리며 자유 남한을 체험한다.

노덕현 기자

대덕 콘스님과 사부대중께 드리는 호소문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불법문중 대덕 콘스님과 사부대중께 삼가 예경합니다.

6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문화 공연장에서 힐링년버벌 템스를 기획 제작하여 공연한 부명스님이 불교신문에 게재한 호소문 광고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혼자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천만 불자들이 한마음씩 보태어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템스의 성공적 공연을 위한 후원을 발원하며 이 광고를 냅니다.

본인은 불자로서 부명스님이 기획 제작한 힐링년버벌 템스공연을 3차례 관람하였습니다.

부명스님의 호소문 내용처럼 대중언론과 방송에서는 호평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브로드웨이나 유명 뮤지컬과는 분명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작품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원력으로 처음부터 성공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출연자들의 열성적인 타악공연은 가히 일품이다. 이것은 온전히 제작부터 연출 감독 등 1인 5역을 맡아 온 몸으로 불사르고 있는 부명스님과 출연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얼마나 많은 젊은 불자들이 불교에 매료되고, 그 불교를 음악으로, 공연으로 전하려 몸부림쳤던가. 그리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좌절과 한탄으로 마음을 접었던 것일까. 그 지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족히 알고 있기에, 많은 아쉬움이 눈에 뵈어도 불구하고 종단 지하 공연장에서 울려 퍼

저지고 있는 힐링 년버벌 타악공연 템스가 남달리 느껴진다."

위의 글은 대한불교조계종 전 문화 부장이셨던 효탄스님께서 불교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1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천만 불교도 여러분! 템스가 불교적 한류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산사음악회나 지방공연을 유지하고 1만원, 10만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하여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템스의 부명스님 돕기를 발원해봅니다.

부명스님의 발원처럼 불교가 20년, 30년의 미래를 지향 한다면 역사와 전통을 겸비한 시중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부명스님께서는 부루나 존자의 원력처럼 템스가 일천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고 대한민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작품으로써 불교적 한류 트렌드를 만들어 내어 문화포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법문중 대덕 콘스님과 사부대중의 제안과 대 자비심으로 템스를 비롯한 불교문화로 시절인연을 만들어 불국정토가 이루어질 발원 드리며 적극적으로 함께 후원 동참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은행 910601-01-347509 (예금주 : 사단법인 이뤘고)
• 부명스님 전화 010-8743-9711, 070-8827-0108

2557년 8월 7 일

불자 해명화 손모듬